

12월 전국 집값 -1.98%...사상 최대 낙폭

전국 아파트값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 하락

세종 -2.47%→-4.85%...5대광역시 -2.39%

금리 인상 기조와 집값 추가 하락 전망으로 주택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 대비 하락률이 2%에 가까워지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나타낸 11월 기록을 갱신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1.98% 하락했다. 1.37% 내려 부동산원이 2003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에 비해 하락 폭이 더 컸다.

서울(-1.34%→-1.96%), 수도권(-1.77%→-2.60%), 5대광역시(-

1.53%→-2.05%), 8개도(-0.67%→-0.96%), 세종(-2.33%→-5.00%) 모두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노원구(-4.28%)가 급매물 하락 거래가 진행되는 중계·상계·공릉동 구축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 도봉구(-2.98%)는 방학·장·쌍문동 주요 단지, 성북구(-2.77%)는 길음·돈암·하월곡동 대단지, 중구(-2.49%)는 신당·순화·황학동 중심으로 매물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며 강북지역 전체 하락 폭이 커졌다.

한강 이남에서는 송파구(-2.17%)가 잠실·가락동 주요 단지 중심으

로 하락거래가 발생하며, 영등포구(-2.05%)는 신길·대림·당산동, 강동구(-1.82%)는 고덕·암사·천호동 주요 단지, 동작구(-1.78%)는 사당·대방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내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예상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25개구 모두 하락 폭이 커졌다"며 "경기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은 연수구와 남동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전세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 가중,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물량 증가로 매매 적체 가능성이 높고 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는 2.42% 내

려 전월(-1.55%)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1.84%→-3.08%), 수도권(-2.18%→-3.40%), 5대광역시(-1.64%→-2.39%), 8개도(-0.55%→-0.93%), 세종(-2.47%→-4.85%)이 마찬가지였다.

서울에서는 노원구(-4.83%), 성북구(-4.13%), 강남구(-3.72%), 송파구(-3.61%), 서초구(-3.41%)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월세는 0.28% 내려 11월(-0.11%)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 하락세가 심화며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와 월세가 동반 하락했다"며 "경기는 서울·하남시 등 신도시, 인천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에 전세가가 하락하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심화했다"고 말했다. /뉴스

포스코그룹, 벤처기업 발굴·육성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온밸리 개소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실리온밸리에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온밸리' 사무소를 개소했다.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온밸리는 포스코그룹이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포항·광양·서울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미국 실리온밸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하협력 담당은 "포스코그룹은 체인지업그라운드 실리온밸리 사무소를 통해, 육성·투자 중인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파트너 연결과 해외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창업-투자-육성-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글로벌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진출 초기 사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무 회의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벤처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개소 의의를 밝혔다.

이에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본투글로벌, 벤처기업 △센코 △파이오엠 △에이엔폴리 △라파스 △프라이빗테크놀로지 △나르마 △비온드허니컴 △팻나우 △코엘트 △네이처글루텍 △뉴로메카와 함께 '포스코그룹 육성·투자 벤처글로벌 밸류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스코그룹이 육성·투자하는 국내 우수 벤처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청,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

광양만권경제청이 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총 17일 간이며 연휴 전(1월 11일~20일)에는 사업장 사전점검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1월 21일~24일)에는 산업단지 배출업소 및 하천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061-760-5114)을 운영한다.

감시대상은 관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의심 사업장 시설 및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친구와 함께 전통놀이 16일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어린이들이 투호 던지기를 하고 있다. /뉴스

광주시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가게' 77곳 지원

롯데리아 침단점·버거킹 수원점·도미노피자 진월점

파리바게뜨 용두점 등 4곳 5년 연속 선정...23곳 새로 진입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23년 청소년이 일하고 싶은 가게,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77곳을 지원한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만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휴식시간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하는 등 노사상생을 실천하는 광주지역 사업장이다.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7년부터 알바친화사업장에 대해 해마다 현장조사 심의를 통해 재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재선정한 54곳과 새로 선정된 23곳 등 총 77곳을 지원한다.

특히, 롯데리아 광주침단점, 버거킹 수원점, 도미노피자 광주지원점, 파리바게뜨 광주용두점 4곳은 5년

연속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1년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 현판 부착,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위치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장 홍보를 지원한다.

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 청소년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HUG, 부채율 90% 넘으면 전세금 보증 한도 낮춘다

"임차인 보호·전세시장 정상화 위해 보증한도 낮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 비율이 90%가 넘어 강릉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낮춘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2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HUG의 이 같은 조치는 전세 사기와 강릉전세 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강릉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

로 대두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강릉전세'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자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강릉전세'로 간주한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보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릉전세가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액과 HUG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4인 차례상, 전통시장이 5만9천원 싸다

중기부·소진공,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비교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보다 약 5만8817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7만656원, 대형마트는 평균 32만9473원이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8817원(17.9%)가량 저렴하다.

품목 분류별 비율차를 보면 채소류(53.6%), 수산물(28.3%), 유류(19.1%)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19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고사리(66.7%), 간도라지(65.6%), 대추(47.7%), 동태포(45.5%), 숙주(42.8%), 최고기(탕국용)(34.7%)순이다.

지난해 설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3.1% 상승(26만2645원→27만656원)였다. 대형마트는 3.6% 하락(34만1859원→32만9473원)였다.

과일류, 채소류는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과 저장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나, 최근 한파와 폭설로 대과와 무 등 일부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고기는 도축 마릿수 및 공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폐지고기는 생산량과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외식 수요 증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위기감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 명절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 광주양동시장을 시작으로 19일 나주목사골시장, 20일 창평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회 등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직접 제작한 장바구니와 핫팩을 나눠주며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 및 '충전식 카드형 온

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을 가진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

카드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주 고객층인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2·30대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한 기자

"광주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광주TP-ASPA 맞손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Asian Science Park Association)가 광주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3층에서 해외투자 관료개척과 산업·기술정보 교류 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산업·기술 정보 교류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신규기러처 확보 등 지역기업 글로벌 연계 및 수출 증진을 위해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ASPA 권

선국 사무총장은 "광주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은 "기업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각종 해외센터 사업을 내실화해 무역협회, 실리온밸리혁신센터, 한상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과 광주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SPA는 아시아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로서 콘퍼런스·연구회·다국적 비즈니스 상담회 등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된 유·무형적 인프라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협회다.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마케팅 지원에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감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출 단계별로 바우처 최대 이용금

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기존 바우처 횟수 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감소기업 1000+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시기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지정된 100여 곳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며, 감소단계(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 선정 기업은 전용 R&D 트랙을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받는다. /권영한 기자